

내년 전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점검

30일까지 접수... 선정되면 신규 판로개척·전북우수상품관 입점·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2년 전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에는 15개 내외 상품 정도를 대표상품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으로 기업별 대표 상품 1개 품목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종사자수 300인 미만, 국가 공인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제품 원료 기준으로 농·축산물(도내산), 전통·가공식품과 수산물(국내산)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OEM 업체는 제외된다.

희망 기업은 도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 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시·군 기업 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되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상승으로 기업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수도권 등 지역별 특관행사, 전북우수상품관 입점, 박람회 참가 지원은 물론 홈쇼핑,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등 신규 판로개척에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임재욱 도 기업지원과장은 "제품의 품질 수준과 우수성, 기업 위생환경 시설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대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할 예정이다"며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동부산악권 농가 대상 방역시설·수칙 준수 점검·홍보

전북도가 경기·강원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점검을 추진한다.

도는 야생멧돼지 접근성이 높은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동부산악권 농가를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5주간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울러, 14개 시·군과 함께, 농가의 축산차량출입통제유형 및 8개 방역시설 구축 현황 조사와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도는 20개반 40명(도 4, 동물위생시험소 8, 시군 28)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농장 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퇴비사 조류 차단망, 돈사 환풍기 방충망 등 설치 여부, ▲울타리 설치 여부, ▲돈사 진

입 전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이행 여부, ▲남은 음식물 돼지농가 이동제한 명령 이행 여부, ▲돼지방목 금지 명령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그간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위험지역 전국 35개 시·군 돼지의 생육·정액·분뇨·사료의 도내 반출입을 금지했다.

또한, 농장 사육돼지, 축산시설, 포획멧돼지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왔고, 아직까지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없었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출입차량·축사내의 소독 등 철저한 방역 활동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전북도가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정착함에 따라, 친환경 장사시설을 확충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와 묘지공간의 부족, 국토훼손 증가, 생태환경 변화 등 각종 사회문제 발생으로 화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화장률은 전국 88.4%, 전북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3% 증가해 85.0%로 나타났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5개 화장시설에서 26개의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다. 봉안시설은 공설 9개를 포함 26개소, 자연장 시설은 공설 5개를 포함해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전주 및 남원승화원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기존 위치에 화장시설 및 화장로를 개축하고 있다. 군산시는 봉안당, 정읍과 고창은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다. 오는 2022년에는 전주, 군산, 정읍에 봉안당을 신축하고, 부안과 순창 등에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장사시설 유치를 희망할 경우 사전절차 이행 및 국비 조기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소상공·자영업자 지원 확대 정부 의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지원책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지자체 역할 강조

전북연구원, 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 제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 체계에서 '2050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전북도 역량을 고려한 전략수립을 통해 지자체 주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 '기후위기 시대, 전라북도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통해 전북도의 탄소중립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북형 뉴딜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전북도의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일상은 모두의 희생, 백신, 치료제 등으로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나,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기인한 '기후위기'로 인해 인류는 코로나 19보다 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세부대책 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정, 분야별 전략 수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 현상에 있는 지자체가 먼저 선언한 만큼,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전북형 뉴딜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3대 전략 9개 주요과제로 구성된 전북도의 탄소중립 대응 기본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탈탄소·생태적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상해' 전략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래 모빌리티 선도, ▲스마트 농생명 선진, ▲탄소중립 상생공간 조성, 이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의 '도약' 전략으로 ▲신산업 육성,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순환경제 활성화, 또,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의 '포용' 전략으로 ▲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성, ▲공정한 전환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정책 발표 이후, 분야별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신속대응 박차

감염병연구부·신종감염병과 신설해 대응 체계 강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 이하 연구원)은 올해 7월 감염병 재난대응 체계 강화에 따른 도 직제개편을 통해 '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과'를 신설했다.

이에, 연구원은 코로나19·메르스·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신종 및 해외 유입감염병의 확인진단과 일본뇌염·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 인플루엔자

감시사업 등 감염병 신속대응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감염병전담부서인 감염병연구부 신종감염병과 신설을 통해 신종감염병 진단에 집중함으로써 전북도 감염병 방역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검사능력 또한 기존에는 일 평균 최대 700건 전후의 검사를 진행

했지만, 앞으로는 약 40% 증가한 평균 1,000건 내외의 검체를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전파차단에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진단 검사 외에도 확진된 양성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변이검사를 질병관리청 호남권 질병대응센터와 검사해왔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능력을 인정받아, 2021년 7월 9일부터 주요변이(알파·베타·감마)에 대한 확정검사

가 가능한 기관이 됐다.

지난 15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시간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PCR)법을 이용한 델타변이 추정검사를 시범운영하고, 약 2주간의 검사능력 평가를 통해 확정검사 권한 이전을 받을 계획이다.

이로써 알파·베타·감마변이 뿐만 아니라, 차후 델타변이에 대한 확정검사 능력까지 확보된다면, 도내 변이발생 신속파악을 통해 추적관리 및 방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